



작가(한국화가)

고 은 주

예술인명	고은주	
소 개		저는 자연물을 통해 인간을 탐구하여 인간의 존재성을 전통 한국화재료를 이용하여 시각화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세상을 바빠 살아가면서 당연시되어 놓치고 있는 것들, 인간의 가치를 다시금 되새겨보고자 합니다.
주 교 이	요 역 령	2015 동덕여자대학교 조형예술학 박사
		2008 동덕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회화과 석사졸업
		2005 동덕여자대학교 회화과 한국화전공 학사졸업
개 인 전		2020 <기원祈願하다>, 갤러리한옥, 서울
		2020 <습지자연관찰일기>, 비봉습지공원 전망대, 경기
		2020 <Hidden Flowers>, CICA미술관, 경기
		2012 <열려진 생명의 시론>, 한원미술관, 서울 외 총 14회
단 체 전		2020 <작가발굴프로젝트 SIMA FARM>, 수원시립미술관, 경기
		2019 <어제와 다른 내일>, 양평군립미술관, 경기
		2018 <모란정원>, 이천시립월전미술관, 경기
		2018 <Digital Era Rediscovery of HANJI>, LA한국문화관, 미국
		2017 <한국미술응원프로젝트 Vol.2>,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서울 외 다수
소 장		2019 정부미술은행 소장
		2019 보령미술은행 소장 외 다수
상 훈		2020 청년작가공모전 최우수상, (사)한국미술사연구소
		2016 충남현대미술대전 전체대상, 충남현대미술대전 외 다수

작품 컨셉 : Flower_꽃을 통한 모성성의 상징 표현

아티스트 스테이먼트(작가의 말)

나의 작품은 '여성이란 무엇인가?' 라는 근원적인 질문에서 출발하였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스스로 자아를 구현해 나가면서 자신의 존재가치를 증명하고 자아 정체성을 탐구하려는 본능을 갖는다. 나 역시 여성에 대한 근원적 물음은 나의 존재가치를 찾아내고 자아 정체성을 탐구하기 위함이다. 특히 여성은 남성과는 다르게 생물학적으로 임신, 출산의 능력을 갖는다는 존재론적 특성에 주목하면서 여성의 존재성을 나타내는 모성의 본질적 가치와 의미에 대해 탐구하기 시작하였다.

나의 작품은 어린 시절에 어머니의 삶을 보면서 여자의 삶은 무엇일까 라는 생각에서 출발하고 있다. 여자의 생애는 나에게 있어 가부장제 아래 희생되어졌던 어머니의 삶과 일치되며, 주체적인 삶이 아닌 타자(他者)와 같은 삶으로 점철되어 비취졌다. 특히 모성의 본질을 탐구하면서 여성의 본성을 남성/여성이라는 사회학적인 관점으로 국한하지 않고 생명의 잉태와 양육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소재로 사용하고있는 꽃에서 생명을 잉태하고 생성시키며, 돌봄, 양육을 하는 모습을 통해 인간과 자연이 지니고 있는 공통적인 속성을 발견하여 여성의 개념을 새롭게 연구하는 소재가 된다. 따라서 나는 꽃의 상징을 통해 여성의 본질을 탐구하고 있는 것이다.

프로젝트명 : <기원祈願하다>, 2020

아티스트 스테이먼트(작가의 말)

최은 작업들은 한국 고대신화에 나타나는 모성원형이 단조가 되었다. 신화를 통해 바라본 모성(母性)은 생명의 근원이자 모태로서 의자아실현의지, 자아의 생산물에 대한 보호의지, 자애라는 감정, 생명의 원인과 비밀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 등을 지니고 있다. 고대 동서양 신화 속의 모성은 생명의 근원이자 모태로서 대모신(大母神)에 기원을 두고 있다. 이 세계가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낳듯이 생겨났다는 고대인들의 생각은 최초의 신을 어머니 여신으로 표상하게 한 것이다.

현재 작업은 한국 고대신화에 등장하는 서천꽃밭(西天花田)의 생명의 꽃을 소재로 사울하고 있으며, 부적의 시원이 되었단 설위설경(設位說經)에서 모티브를 얻어 제작하였다. 그래서 꽃에 숨겨진 신화적 상징을 발견하고 설위설경 모티브에 간접한 바램을 담아서 모성이 갖는 보호의지의 속성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내가 요즘 과거에 관심을 갖고 신화 설화 등을 연구하는 이유 중 하나는 그것을 통해 지금 여기 우리들의 삶의 의미를 바르게 파악하기 위함이다. 신화 속에 나타난 모성원형들을 분석하여 과거의 집단 의식이나 부의식, 문화와 생활을 이해하고 이를 현재의 여성에 투영시켜보는 것은 결국 여성의 가치를 다원화 된 현대 사회에 새롭게 부각시키고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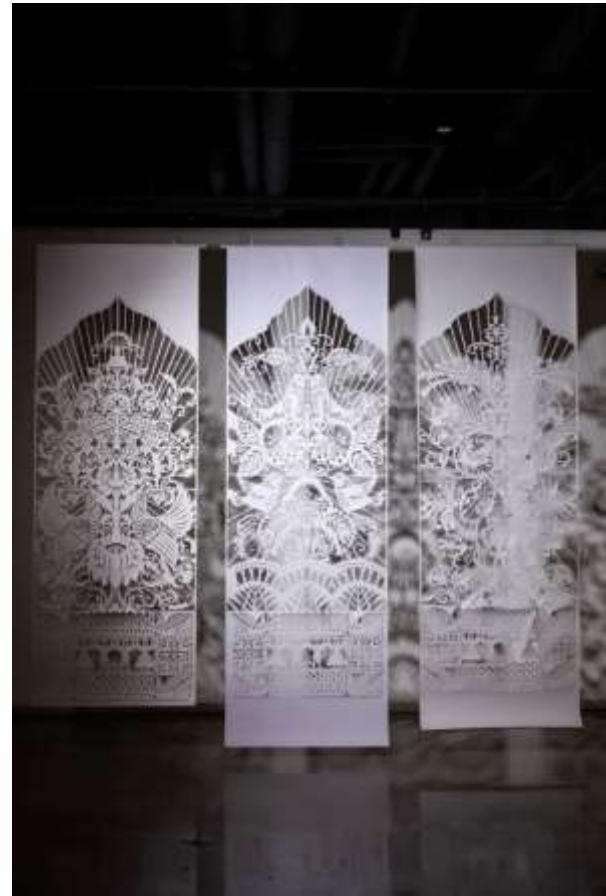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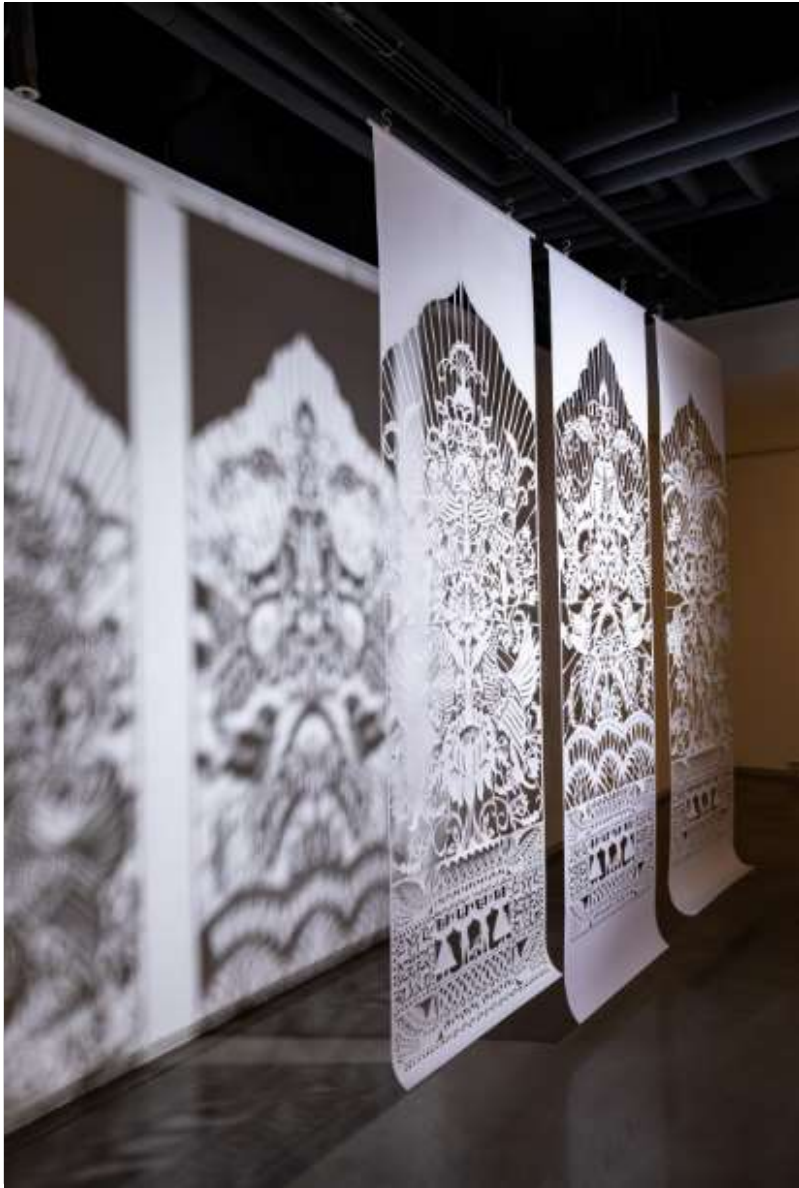
(좌) <삼재소멸부>, 비단에 채색, 컷팅, 80x60cm, 2020
(우) <북약호력부>, 비단에 채색, 컷팅, 80x60cm, 2020



〈신마신장부〉, 비단에 채색, 컷팅, 91x133cm, 2019



〈신마신장부〉, 비단에 채색, 컷팅, 91x133cm, 2019



〈숨은꽃찾기〉, each 230x90cm, 가변설치, 종이에 컷팅, 2019

프로젝트명 : <Pray for a child>, 2016

아티스트 스테이먼트(작가의 말)

이번 꽃의 상징 작업들은 임신과 출산의 과정을 겪으면서 잠재적인 어머니로서 모성의 개념의 인식이 확장되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고대부터 갖고 있던 꽃에 대한 의미는 생명을 잉태하고 생성시키며, 음양의 생성원리를 지니고 있으며, 인간이 꽃에서 나서 꽃에서 다시 피어난다는 생각들이 담겨 있다. 이는 자연을 하나의 커다란 유기체로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럼에 따라 꽃은 단순히 바라보는 대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생명체이자 교감을 나누는 대상으로써 꽃 속으로 꽃은 내 속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여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자연스럽게 인간의 생(生)과 닮아있는 꽃은 인간의 본성을 반영하는 상징 소재가 된다.

작품 속의 꽃과 물의 이미지는 고대신화에 나타나는 이미지를 차용해 온 것이다. 꽃 이미지는 서천 꽃밭 신화 중에서 아기를 잉태시켜주는 영력(靈力)을 지닌 '생불 꽃'의 의미가 강한데 이것은 생명을 잉태, 출생시키는 꽃으로 다산을 기원하는 기복의 대상이 된다. 물방울 또한 천지창조의 신화에서 물은 대지모신(大地母神)의 육체에 생명력이 더해진 수태(受胎)의 순간이며, 지상으로 떨어지는 물은 생명의 씨앗으로 원초적인 생명을 의미한다. 이러한 순환적인 이미지를 결합하여 표현함으로써 생명을 잉태하고 재생하는 상징은 더욱 극대화 된다. | 2016 작업노트 중



〈 Pray for a child_富貴功名〉, 비단 위 채색, 118.5x160cm, 2017



Pray for a child_점지, 비단위 채색, 103x153cm, 2018



〈 Pray for a child_잉태 II 〉, , 비단 위 채색, 114.5x109cm2016



〈Pray for a child_서천꽃밭 시리즈〉부분, 비단 위 먹, 채색, each 29x130cm, 2016

프로젝트명 : <생명의 시론(화양연화)>, 2012

아티스트 스테이먼트(작가의 말)

결혼을 앞두고 모성과 자아정체성 사이에서 겪었던 갈등, 그리고 생명의 본성으로의 모성본질의 재인식하고 수용하게 되는 과정을 거친다. 나는 이러한 갈등적 상황을 수용하고 해소하는 과정을 또 다른 새로운 생명의 열린 가능성을 지닌 만개한 꽃 위에 가변적인 물방울 이미지를 이용하여 표현하였다.

꽃이 생명의 정점을 이룬 때는 바로 만개한 순간이다. 하지만 그 순간은 아주 짧고 복잡 미묘하다. 새로운 생명의 솟아남과 동시에 소멸을 직감하게 된다. 만개한 꽃이 아름답다고 느끼는 이유는 활짝 핀 화려함 뒤에 담긴 인고의 세월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며, 또 곧 닥칠 소멸을 직감하고 새로운 생명을 틔우려는 의지가 담겨 있기 때문일 것이다. 만개한 꽃은 생의 절정에서 가장 빛나는 것을 스스로 버리는 축제인 셈이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만개한 꽃 위로 흐르는 물은 투명한 틀이 있음을 암시한다. 투명한 틀은 20대 여성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의 틀이다. 우리 사회 속 당연하게 여겨지는 고정적인 여성상의 프레임인 것이다. 그 위로 흐르는 가변적인 물방울 이미지들은 모성과 자아정체성 사이에서의 갈등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어떠한 것도 받아들이는 포용성과 수용성을 지니고 있어 주어진 환경에 따라 변형이 가능한 열린 가능성을 지니기도 한다. 그러므로 모성에 갈등하고 모성의 개념들을 재인식하고 수용하기까지의 과정을 나타내는데 주된 조형적인 장치가 된다. | 2012 작업노트 중



〈생명의 시론〉 종이에 채색, 91x117cm, 2011



〈생명의 시론_사막장미〉 비단에 채색, 65x79cm, 2013



〈생명의 시론_행복하(幸福蝦)〉 비단에 채색, 130x96cm, 2013



〈생명의 시론_달리아 I〉 한지에 채색, 261×194cm, 2013



〈생명의 시론_데이지〉 한지에 채색, 175x260cm, 2012

프로젝트명 : <영원한 어머니의 표상>, 2007

아티스트 스테이먼트(작가의 말)

꽃 이미지의 확대를 이용한 나의 작품은 어머니라는 이름에 둘러싸인 사회적인 요소로서의 여성성을 인식하면서 소외되어 있던 어머니의 본래적인 모습을 주체화시키려 한 작업이다.

우연한 기회에 마주하게 된 꽃잎이 떨어져 앙상한 장미꽃은 암술과 수술만이 영롱한 이슬을 머금은 채 처연하게 남아있었다. 그 장미는 마치 가슴에 품었던 자식들을 하나 둘 세상에 내보내고 마지막으로 남은 어머니의 삶을 연상시켰다. 그것은 자식을 향한 희생적인 사랑의 숭고한 아름다움이였다.

나는 확대된 꽃잎으로 모성의 숭고한 모습을 표현 하고자 했던 것이다. 또한 시들어진 꽃잎이 아닌 생생한 꽃잎으로 곱게 채색함으로써 아름다웠던 시간으로 회귀시키고자 하였다. 그때의 아름다움을 영원히 간직함으로써 여성으로서의 존재의 이유를 다시 세우고자 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어진 한 장의 꽃잎은 어머니의 본래의 모습을 다시금 되찾고 사회 속에서 소외된 어머니들에게 회복의 가능성을 열어 놓는다. 꽃잎은 이러한 의미에서 특별한 가치를 갖게 된다. | 2007 작업노트 중



〈꽃_영원한 어머니의 표상〉
한지 위 채색, 115x90cm, 2007



〈꽃_영원한 어머니의 표상〉 한지위 채색, Each 162x130cm, 2007



〈꽃_영원한 어머니의 표상〉 한지 위 채색, 162x130cm, 2007



〈꽃_영원한 어머니의 표상〉 한지 위 채색, 140x140cm, 2008

주요전시 : <습지관찰일기> 2020 고은주 프로젝트전시-비봉습지공원



전시일정	2020. 11. 07 ~ 2020. 11. 17
전시장소	비봉습지공원 전망대(경기도 화성시 새솔동)
전시소개	본 전시는 2020 화성시문화재단 지역문화예술사업에 선정되어 진행된 프로젝트 전시로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비봉습지에 서식하고 있는 멸종 위기종 새를 비롯한 다양한 동. 식물들의 세계를 관찰하고 전통 화조화 기법을 이용하여 습지생태계를 기록한 것이다.
영상링크	

주요전시 : <기원祈願하다> 2020 고은주 개인전- 갤러리한옥



주요전시 : <기원祈願하다> 2020 고은주 개인전- 갤러리한옥

자연을 상징하는 생명 에너지의 원천

중국의 전통 연극에 그림자 인형극 피영(皮影)이 있다. 전통연극인 경극과 함께 민간에서 시작된 이 인형극은 동물 가죽을 이용해 형상을 만들고 이를 빛을 통해 그림자로 이미지화한다. 여기에 대사와 노래가 함께하는 인형극이다. 고은주 작가의 '숨은꽃찾기' 시리즈 작품 중 흰 종이에 칼로 파서 제작 설치된 작품의 이미지는 마치 인형극 피영의 한 장면이 연상된다. 작가는 주로 꽃을 주제로 작업하는데, 꽃이 의미하는 것은 생명의 완전체로서 생명에너지의 원천이자 큰 의미에서 자연을 상징한다.

작가는 최근 임신과 출산, 육아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일에 몰입한다. 아이가 생김으로 자신의 소중함도 느끼고 부모님에 대한 감사함도 느끼는 시기가 이 시기이기도 하다. 뭔가 알 수 없는 세계에 대한 믿음도 생기고 인연에 대해 생각하게 되면서 매사에 조심스럽게 기도하게 되고 마음이 순화되는 때이기도 하다. 그래서인지 작가는 작품 초기부터 꽃에 대한 관심과 표현을 이어 왔으면서 좀 더 색다른 시각과 표현 기법을 확장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소개하는 작품은 그동안 비단위에 채색기법을 표현하는 데서 더 발전해 기원과 기복의 의미를 담은 작품설치로 확장되었다.

소개된 작품은 '설위설경(設位說經)'이라는 전통이 모티브가 되었다고 하는 종이작업인데, 설위설경은 원래 불경을 해설하는 것을 말한다고 한다. 하지만 넓은 의미로 무속에서 굿을 하는 굿당을 장식하는 장엄구로 축원의 문구나 악귀를 물리치는 내용을 담아 종이를 오려내어 만든 장식이라고 한다. 꽃을 주제로 하면서 그 꽃은 한국 고대 신화에 등장하는 서천꽃밭(西天花田)의 생명의 꽃이라고 하는 다소 환상적인 이야기가 작품 속에 담겨 있다. 음양오행에 담긴 뜻과 삼신할미가 결합된 신화에서 각각 성격이 다른 꽃으로 등장한다. 죽은 이들의 전당이면서 동시에 삶이 시작되는 곳인 샘이다.

이러한 생명의 꽃밭에 여러 형상을 중첩하면서 새로운 설위설경의 장식을 만들어 내고 있다. 작가는 궁극적으로 아이를 향한 축원의 마음을 담았다고 이야기 한다. 보통 종교화에서 보는 것처럼 작품은 삼단구조로 되어있다. 맨 아랫단에는 사람의 형상이 나란히 배치되어 이 세상을 의미하고 축원의 상징들을 떠받들고 있으면서 중간 부분과 상단은 대칭된 형태로 길조라 여겨지는 원앙이나 봉황과 같은 새와 꽃동산을 연상하게 하는 풍성한 꽃밭이 펼쳐져 있다. 배경은 햇살과도 같은 빛살무늬로 축원의 이미지를 강하게 풍긴다. 칼로 오려낸 부분은 새로운 공간으로 양 공간을 분할하는 것이 아닌 두 공간의 소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자로 비쳐진 벽면의 이미지는 연극의 한 장면처럼 극적인 효과와 함께 상상의 나래를 자극한다.

작가는 자신의 현재 삶의 모습을 고스란히 작품에 담아내고자 한다. 대자연의 위대한 순간도 어찌 보면 자기 자신, 나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면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일, 자기 자신의 내면을 제대로 바라보고 응시하는 일은 작은 일이 아니라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다. "최근 작업들은 근래에 아기를 임신하고 출산을 경험하면서 모성을 내재한 엄마의 마음, 엄마의 바람을 표현한 것이다"는 작가의 말 속에 엄마의 마음은 작은 것 같지만 모두의 마음 같아 큰 울림으로 다가온다. ■ 임연숙 (세종문화회관 예술교육 팀장)

주요전시 : <숨은꽃찾기> 2019 고은주 개인전 - CICA미술관



주요전시 : <Pray for a Child> 2016 고은주 개인전- 갤러리KNOT



주요전시 : <Pray for a Child> 2016 고은주 개인전- 갤러리KNOT

생명을 만나는 장소 꽃

고은주 작가는 상징 구조로서 꽃에 주목한다. 꽃이란 암술과 수술이 만나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장소이다. 여기서 생겨난 열매로부터 새로운 개체들이 만들어지고 생물은 번식하게 된다. 생명이 탄생하고 번식하게 되는 과정의 중심에는 꽃이 있기에 작가는 여기에 주목하는 것 같다. 이와 함께 작가가 관심을 갖는 대상은 물이다. 물 역시 생명에 관계하는 중요한 물질이다. 모든 생명체는 물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이렇게 작가는 꽃과 물과 같은 상징물을 그의 작업 소재로 삼아 생명현상에 관심을 갖고 작업해 왔다.

그러나 작가의 관심은 단순히 생명이 번성하고 확산하는 것에 있지는 않다. 왜냐하면, 그가 바라보는 세계는 유기체적으로 세계가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동양의 일원적 세계관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생명이 태어나고 번성하는 일은 순환의 한 부분이자 조화를 이루는 과정이 된다. 세계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정복할 대상이 아니라 조화와 순환의 장소가 되는 것이다.

작가는 이처럼 이 세계와 관련하여 자연의 신비로운 생명 현상에 대한 상징으로 꽃에 집중하고 이를 고찰하며 작업해 오고있다. 그런데 작가의 태도에서 이러한 현상들이 관찰의 대상으로서 타자적 위치에 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게 된다. 왜냐하면, 작가 자신이 여성으로서 생명을 잉태하게 되면서 스스로 그 생명 현상을 경험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음양의 조화로 꽃이 열매를 맺고 씨앗을 탄생시키는 과정은 고스란히 몸에서 재현되었을 것이며, 그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것을 경험하는 과정은 신비의 시간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경험은 이 세계가 연결되어 있으며 하나의 커다란 유기체임을 몸으로 경험하는 순간이었을 것이다.

그의 작품에는 그래서 전체 화면이 꽃으로 충만하다. 혹은 물방울이나 알과 같은 모양의 형상 안에 꽃이 가득 채워져 있음을 보게 된다. 작가에게 있어서는 이 세계 전체가 꽃과 같은 생명작용으로 충만한 곳이 되어버린 것이다. 작가는 그것을 이제 화폭에 옮기고 있다.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는가는 세계를 대하는 태도에 달려 있을 것이다. 작가는 이제 그가 생각해온 세계일 뿐만 아니라 그가 경험한 세계에 대해 표현하고 있다. 그렇기에 그의 작업이 더욱 설득력을 갖게 되는지 모른다. 그것은 작가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작업을 보는 이들에게 세계를 바라보는 다른 태도를 갖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의 작업을 보게 된다면 꽃의 아름다운 이유를 이제 더 이상 외양의 빛깔이나 형태에만 근거하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꽃은 그 형상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신비한 생명을 탄생시키는 곳으로써도 이미 충분히 아름다운 존재이기 때문이다.

고은주 작가의 작업이 흥미로운 점은 꽃을 그렸고, 꽃의 아름다움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게 만들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꽃을 알게 만든다는 점이다. 그리고 꽃으로부터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는 것과 그가 생명을 체험하는 시간 동안 느껴왔던 감성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 역시 그의 작업 세계를 접하게 될 때 얻을 수 있는 좋은 점들일 것이다. 왜냐하면, 그의 작업을 만나는 것은 꽃을 만나는 것이자 그곳에 담긴 생명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갤러리 너트 성진민

주요전시 : <열려진 생명의 시론> 2012 고은주 개인전 - 한원미술관



주요전시 : <열려진 생명의 시론> 2012 고은주 개인전 - 한원미술관

열려진 생명의 시론(詩論), 분열된 꽃

작가 고은주가 근자에 보여주는 연꽃의 만남은 결정적인 인식의 전환점이 되었던 것 같다. 연꽃은 다른 꽃들이 지니지 못한 복합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동서양을 막론하고 문명의 기저에는 연꽃이 등장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브라흐만, 붓다, 호루스 모두가 연꽃에서 태어난 것으로 본다면, 연꽃은 물(水)이자 세계이며 대지(大地)로 인식되었음이 분명하다. 사실, 이것은 이노우에 다다시(井上正)가 동양의 오래된 '기(氣)'의 사고체계를 정리한 '운기화생(雲氣化生)'에서 말하는, 기가 변화하여 물이 되고, 물이 변화하여 연꽃으로 탄생한다는 이론과도 상통한다.

그런데, 작가는 물과 꽃이 결합한 꽃의 강인한 생명력에 주안점을 주었던 관점을 물과 꽃을 분리시키기 시작하고 있다. 마치 비가 내린 창문 너머로 꽃이 어른거리거나 쏟아지는 물로 인해 꽃의 형상조차도 명징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다. 이것은 꽃의 분열이며 해체이고, 꽃의 일탈이며 전복이다. 꽃이라는 물질 속에 숨어들어 있던 조용한 타자로서의 생명의 핵, 물이 조형을 갖고 외부세계로 빠져나와 하나의 존재자로서 삶을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꽃과 물이 하나의 동일한 자아로써 동일체로 존재하고 있었다면, 신작의 꽃들에서는 꽃과 물 또는 꽃과 생명력이 자아와 타자로써 분열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타자로서의 물은 꽃의 존재방식을 결정하는 하나의 전능한 힘이 부여되거나, 스펙트럼이 되어 꽃의 형상을 반영하는 주체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꽃과 물은 주체와 타자로서 다시 타자와 주체로써 결합하게 된다. 타자이면서 주체인 것. 그것은 지극히 동양적인 물아(物我)가 합치된 인식의 지평이며 또한 꽃의 상징을 형성하기 이전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상상계로서의 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작가의 꽃에 관한 확장된 인식의 세계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지극히 동양적인 작품의 내용에서 라캉(Lacan)이 말하는 상상계와 상징계를 넘나드는 조형이 보이는 것은 이처럼 우연은 아닌 것 같다.

이를 통해 꽃이 가진 오래된 상징들이 분열되고 해체되고 또는 폭로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사실, 꽃을 여성으로 규정한다면 여성의 본성을 분해한 여성의 해체론적 폭로가 될 것이며, 꽃을 문명이라면 문명의 해체와 반성이 될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고은주의 해체는 꽃의 고정된 상징의 틀을 부수거나, 상징의 문을 열고 유연하고 개성적인 작가의 내면과 사고들을 주입하고 드러내고자 함인 것이다. 따라서 고은주의 작품들은 단일하고 고정된 상징의 내용들이 풍부한 스토리를 가진 문학적이며 시적인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꽃의 분해와 해체를 통해 더욱 견고한 꽃의 아름다움과 생명력이 발견되기도 하며, 꽃과 물의 간극 사이로 스며드는 표정 있고 문학적인 삶의 언어들이 감지되기도 한다. 이는 다음 연작들이 기대가 되는 이유이기도 하며, 성숙한 인식의 경계에 선 작가의 잔잔하지만 섬세하고 희망적인 목소리가 느껴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 박옥생(미술평론, 한원미술관 큐레이터)

주요전시 : <영원한 어머니의 표상> 2007 고은주개인전 - 동덕아트갤러리



주요전시 : <영원한 어머니의 표상> 2007 고은주개인전 - 동덕아트갤러리

꽃잎에 새긴 어머니 마음

식물은 생애 절정에서 꽃을 피운다. 그래서 꽃은 아름답다. 자연 창조물 중 신의 숨씨가 가장 빛을 발하는 순간도 꽃이 아닌가 싶다. 꽃이 더욱 아름다운 것은 낙화가 있기 때문이다. 가야할 때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이 아름다운 것처럼, 분분한 낙화는 튼실한 열매를 얻기 위한 축제다. 결실을 위해 자신의 아름다움을 사르는 고통의 축제, 생애 절정에서 가장 빛나는 것을 스스로 버리는 희생의 축제. 꽃은 이처럼 외모만큼 아름다운 비밀을 품고 우리 앞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예술의 가장 중요한 모티프로 자리 잡게 되었다.

고은주도 꽃을 그린다. 그는 꽃을 탐사하듯 그린다. 눈앞으로 바짝 당겨 내밀한 부분까지 치밀하게 잡아낸다. 그것도 꽃잎만을 가려내 화면에 옮긴다. 그래서 그가 그려내는 꽃은 정체를 알기가 어렵다. 이쯤 되면 고은주가 꽃을 통해 하려는 얘기의 윤곽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는 꽃의 보이는 모습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외모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 꽃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러면 무엇일까. 작가는 꽃잎에서 '모성'을 보았다고 말한다. 자식을 위해 헌신하는 숭고한 어머니의 마음을 읽었다는 것이다. 결실을 위한 낙화와 어머니의 희생을 같은 마음의 다른 모습이다. 자연을 닮은 모성 본능은 모든 생명체의 존재 필수 조건이다. 특히 꽃이 그렇다. 꽃이 갖고 있는 아름다운 자태와 색깔, 향기는 오로지 수정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온 힘을 다해 새 생명을 잉태하는 것이다. 그리고 생명의 씨가 온전히 자라도록 깊숙이 품는다. 꽃이 있던 자리에서 식물은 열매를 맺는다. 새로운 세상을 열기 위한 열매다. 꽃의 이러한 모습은 어머니의 마음과 꼭 닮아 있다.

고은주가 그리는 꽃은 자기희생이라는 숭고한 모습을 아름다움으로 변안해내는 작업이다. 눈앞에서 반짝이다가 스러지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어머니 마음 같은 속 깊은 아름다움이다. 그가 그린 꽃에서 현란함이나 강렬한 인상이 들어있지 않다. 한참을 보고 있어야 은은하게 배어나오는 푸근한 아름다움을 찾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인지 그의 작품은 요즘 젊은 작가들과는 다른 맛을 보여준다. 그림만 보면 꽤 나이든 작가의 숨씨가 묻어나온다. 표피적 감각에 호소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중 예술적 취향이 각광받고 있는 세태에서 보면 진부한 듯 보인다. 고은주가 추구하는 회화의 맛은 고전적 감동에 다가서려는 것이다. 감흥의 진폭이 넓고 깊게 물려 오래 지속되는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다. 어머니 마음같이 은은하게 배어나오는 아름다움. 끝없이 퍼내도 한없이 솟아나오는 어머니 사랑 같은 아름다움. 즉 아름다움의 농익은 맛을 제대로 내고 싶은 것이다. 농익은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 그는 전통방식의 채색기법을 충실하게 따르고 있다. 한지에다 색채의 감정을 제대로 심으려면 많은 공력이 필요하다. 특히 꽃 빛깔의 고운 맛을 살리기 위해서는 끈기를 가지고 같은 색을 여러 겹 입혀야 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색을 올린 고은주의 꽃은 깊이 있는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 즉 색채가 화면으로부터 번져 나오는 듯한 맛을 내고 있다는 말이다.

'도라지'라는 부제가 붙은 작품을 보자. 평면화시킨 도라지 꽃잎은 추상성을 띠고 있다. 책갈피에 꽃아두었던 꽃잎을 꺼내 확대해 놓은 것 같다. 추억을 꺼내듯 펼쳐진 꽃잎은 이미 꽃이 아니다. 보라색의 농담이 중심부를 향해 진해지고 있다. 꽃잎 가장자리로부터 무수한 선들도 중심부를 향하고 있다 싹틔줄이 심장을 향해가는 것처럼, 그러나 중심부는 비어있다. 생명의 씨앗을 품었던 자리다. 고은주가 그린 다른 꽃들도 같은 구성을 하고 있다. 중심부를 향해 시선이 집중되도록 유도하고 있다. 마치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강한 흡입력을 보여주고 있다. 의도적인 구성인 것이다. 꽃잎너머의 세계를 얘기하고 싶은 것이다. 꽃잎은 생명을 잉태하고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문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성장의 문이다. 식물은 낙화라는 통과 의례로 이 문을 넘어선다. 그리고 새로운 세상의 청사진을 품은 열매를 맺는다. 꽃잎 너머의 새 세상인 것이다. 이를 열기 위해 꽃잎이 견디는 세월은 혹독하다. 인고의 시간이다. 꼭 어머니의 마음을 빼 닮은 것이다. 고은주가 꽃잎을 정성스럽게 그리는 이유다. ■ 전준엽(평론가)

주요전시 : <작가발굴프로젝트 SIMA FARM>



전시일정	2019. 12. 30 ~ 2020. 01. 31
전시장소	수원시립미술관(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833)
전시소개	작가 발굴프로젝트 SIMA FARM은 청년작가 10인을 선정하여 시각, 영상, 사진 등 다양한 장르의 시각예술 분야의 작가와 미술계 전문가 멘토링 지원을 통해 작가의 성장과정을 함께 보여주었다.
영상링크	https://youtu.be/O-ZYPgVEBFg

주요전시 : <모란정원>



전시일정	2018. 11. 21 ~ 2019. 02. 10
전시장소	이천시립월전미술관(이천시 경충대로 2709번길 185)
전시소개	이천시립월전미술관이 모란을 주제로한 전시를 기획하여 고은주, 김근중, 김선영, 김영지, 김은주, 서용, 윤정원, 장희정, 조환 현대작가 9명의 작품을 3part로 나누어 선보였다.
영상링크	

주요전시 : <한국미술응원 프로젝트>



전시일정	2017. 11. 08 ~ 2017. 11. 14
전시장소	세종문화회관 미술관(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75)
전시소개	한국미술응원프로젝트는 <비즈한국>과 <일요신문>이 실력있는 젊은 작가를 발굴, 홍보, 전시하는 작가 육성 프로젝트 이다.
영상링크	https://youtu.be/0f6NsBWXYHI

주요전시 : <숨은꽃찾기>

언론보도 스크랩(2020 화성문화재단 매거진 화분 vol.46_고은주작가)



꽃잎에 담긴 어머니의 마음
한국화 작가 고은주

꽃과 엄마, 너무도 흔해서 자주 외면하는 이름들. 고은주 작가는 장맛비 속에서 암술과 수술을 지키다 홀로 떨어진 꽃잎을 보며 엄마를 떠올렸다. 그리고 더 오래 기억하기 위해 작품을 남겼다. 그가 정면으로 마주 보고 그린 꽃잎에는 비단 엄마의 이름뿐 아니라, 세상 모든 여성의 이름이 담겨 있다. 자기 자신과 가족을 지키기 위한 따뜻한 그림을 그리며 매일 염원하는 두 손을 모은다.

[illegible]

주요전시 : <생명의 시론>

언론보도 스크랩(문화일보 2017.3.28)



문화일보 문화

기사 게재 일자 : 2017년 03월 28일

☞ 프린트 ☞ 달기

<그림 에세이>

꽃은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문

가벼운 내용을 쉬운 말로 얘기하면 금방 알아차린다. 그렇지만 맘에 오래 새기지는 못한다. 대중예술이 그렇다. 순수예술은 어떨까. 깊이 있는 내용을 쉽게 말해야 한다. 그런데 현대예술은 어려운 이야기를 어렵게 표현한다. 심지어 현학적 수사로 치장한 뻔한 내용도 많다. 우리 시대 한국 현대미술이 그렇다. 풍자는 이미 2500여 년 전에 '가장 좋은 예술은 반드시 쉬워야 한다'고 설파했다.

고은주는 꽃을 그린다. 탐사하듯 치밀하게. 그런데 여기에 담은 이야기는 심오하다. 생명의 순환을 꽃의 생리로 말한다. 꽃은 생명을 잉태하고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문이다. 생명 순환의 고리다. 식물은 낙화라는 통과 의례로 이 문을 넘는다. 그리고 새로운 세상의 청사진을 품은 열매를 맺는다. 꽃 너무 있을 다른 세계. 이를 열기 위해 꽃이 건디는 세월은 다. 희생의 아름다움. 낙화다. 작가가 꽃을 정성 다해 그리는 이유다.



▲ 고은주, 생명의 시론-새우선인장꽃, 96×80cm, 비단 위 채색, 2014

혹독하다. 인고의 시간이다. 결국은 자신마저 버린

전준엽 화가 미술저술가

